



선지자는 그가 당면했던 박해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들로 인해 자주 가족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와 그의 형 하이럼이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선지자의 아내 에머와 아들 조셉이 그를 찾아왔다.



사랑과 신앙이 가득한 마음: 가족에게 보낸 선지자의 편지

“영원토록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참되고 충실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오.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 곁을 맴돌고 있소. 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족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지닌 조셉 스미스는 급속도로 확장하는 조직의 필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광범위한 여행을 해야 했다. 그가 1831년 여름에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가 시온이 건설될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교회는 그곳에서 급속히 성장해 갔으며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도 계속하여 성장했다. 1831년부터 1838년까지 교회에는 사람들이 밀집한 두 장소가 있었다. 한 곳은 미주리 주였으며, 다른 곳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커틀랜드였다. 이 기간 동안 선지자는 미주리에서의 교회 발전을 감독하기 위해 1,448킬로미터에 달하는 힘든 여행을 다섯 차례나 했다.

1833년, 그리고 1837년에, 조셉 스미스는 캐나다 북부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여러 지부들을 강화했다. 1834년과 1835년에 그는 교회 회원들을 만나보기 위해 미시간 주를 방문했고, 이 기간 동안 그는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과 살렘, 뉴저지 주 몬머스 군, 뉴욕 주 뉴욕시티와 알바니,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워싱턴 디시, 그 외 다수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업무를 수행했다.

선지자의 이러한 여행을 통해, 그는 반복해서 겪었던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랬듯이 자주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했다. 그는 여러 차례 부당하게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십여 차례 이상 근거 없는 소송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837년 7월 27일, 선지자와 그 밖의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 커틀랜드를 떠났다. 오하이오 주 페인스빌

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근거도 없는 악의에 찬 소송으로 인해 하루 종일 억류되”었다. 그들은 커틀랜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다시 여행을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해가 질 무렵 커틀랜드로 돌아가기 위해 마차에 올라탔는데, 이번에는 보안관이 마차에 뛰어올라 고삐를 붙잡으며 다른 영장을 내보였다.”¹

이와 같이 선지자가 많은 시간 동안 집을 비우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가혹한 시련이었다. 그가 에머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가 겪은 외로움과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계속해서 가족에 대한 큰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적었다. 그는 또한 가족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 확신을 주었으며, 그들이 직면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나타내 보였다.

1832년 4월 1일, 폭도들에 의해 타르 칠과 깃털이 꽂히는 일을 당한 지 일주일, 그리고 양자로 데려온 아들이 죽은 지 이틀째가 되던 날, 선지자는 미주리로의 두 번째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났다. 분명 그는 아내 에머, 그리고 자녀들 중 유일하게 생존한 아기 줄리아에 대한 슬픔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다음 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가족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인디애나 주 그린스빌에서 몇 주 동안 머물러야만 했다. 선지자의 여행 동반자 중 한 사람이었던 뉴얼 케이 휘트니 감독이 역마차 사고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여행을 하기 전에 건강을 회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선지자는 일종의 식중독에 걸려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턱이 탈구되기도 했다. 그는 휘트니 감독에게로 갔으며, 아직도 자리에 누워 있던 그는 조셉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다. 선지자는 즉시 병 고침을 받아 회복되었다.

이 경험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선지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적었다. “마틴 [해리스] 형제가 이곳에 도착하여, 그가 이곳으로 출발할 무렵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지내고 있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소. 그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영적으로 힘을 북돋아 주었소. 우리는 우리와 당신,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리오 ... 내가 스스로 흡족하도록 노력하고 주님께서 도와 주시기는 하지만, 상황이 몹시 좋지 않구려 ... 귀여운 줄리아가 보고 싶고 다시 한 번 그 아이를 내 무릎에 앉혀 놓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 당신의 남편으로서 나의 충절을 당신에게 보내오. 내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고, 평안이 함께하며, 잘 지내기 바라오.”²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안을 주며 힘을 북돋워 준다.

1832년 10월 13일, 뉴욕 주 뉴욕시티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오늘 나는 뉴욕 시의 가장 번화한 거리를 걸었소. 건물들은 보는 사람마다 놀랄 만큼 참으로 크고 훌륭했소 ... 더 이상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바라본 후에,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생각에 잠겼소. 그리고 에머와 줄리아가 있는 집을 생각했소. 내 마음은 홍수처럼 그곳으로 달려가 잠시라도 당신과 아이와 함께 있고 싶소. 내 가슴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소. 내가 당신과 함께하게 될 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리다. ...

“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특별한 시련과 현재의 역경[당시 에머는 임신 중이었음]에 대해 위안이 되는 말을 해 주고 싶소. 당신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길 바라오. 나는 하나님께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고, 당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당신의 어깨에서 많은 짐을 털어 주시도록 간구하오. 나는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상태를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당신의 친구라는 것과, 당신에게는 또한 세상에 살아 있는 또 하나의 친구, 당신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받아야 하오.”³

1838년 11월 12일, 그가 투옥되어 있던 미주리 주 리치몬드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오. 그것은 내게 참으로 값진 것이었소. 오 하나님, 제가 자유와 사회 생활의 기쁨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을 제 품 안에 안고 사랑스런 볼에 입을 맞춘다면 제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아직 살아 있으며 머지 않아 다시 돌아가 그들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믿으라고 전해 주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당신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스스로를 위로하구려. ...

“추신: 최대한 자주 편지를 써 주고, 혹시 가능하면 면회도 오고,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구려. 당신의 생각과 가장 훌륭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좋겠소. 당신 마음이 위안을 받도록 노력하시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소.”⁴

1839년 4월 4일,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사랑하는 나의 에머, 나는 계속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소. ... 나는 어린 프레드릭,

조셉, 줄리아, 그리고 알렉산더와 조한나[스미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고아], 그리고 늙은 메이저[집에서 기르던 개]가 보고 싶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यो. 당신을 보기 위해서라면 나는 여기서 당신이 있는 곳까지 맨발과 맨머리, 그리고 반쯤 벌거벗은 상태라 해도 기꺼이 걸어갈 것ियो. 그리고 그것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생각할 것ियो. … 나는 굳건한 마음으로 온갖 역경을 견디고 있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용기를 잃은 자는 아무도 없소.”⁵

1840년 1월 20일, 펜실베이니아 주 체스터 군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당신을 한 번 더 보고 싶소.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지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기에 당신에게서 그리 오래 떠나 있지는 않을 것ियो … 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럴 것ियो.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집에 갈 때까지 당신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오. 사랑하는 에머, 내 마음은 당신과 아이들 주위를 맴돌고 있소. 나를 기억해 주기 바라오. 아이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고 가능한 한 빨리 가겠다고 말해 주오.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⁶

자녀를 가르칠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1838년 11월 12일, 그가 투옥되어 있던 미주리 주 리치몬드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어린 조셉에게 그는 반드시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며, 아버지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오. 그는 장남이니 동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오. 어린 프레드릭에게 아버지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오.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오. 줄리아 역시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오. 나는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오. 그녀는 총명한 아이오. 그 아이에게 아버지를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그리고 착한 소녀가 되라고 말해 주시오. 내가 나머지 아이들 모두를 생각하고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해 주오 … 어린 알렉산더는 계속 생각이 나는구려. 오 나의 사랑하는 에머, 영원토록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참되고 충실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오.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고 있소. 오, 하나님이 당신과 가족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오, 아멘. 나는 당신의 남편이며 족쇄와 고난 가운데 있소.”⁷

1839년 4월 4일,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나는 당신이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잊지 않게 하기를 바라오. 그들에게 아버지가 그들을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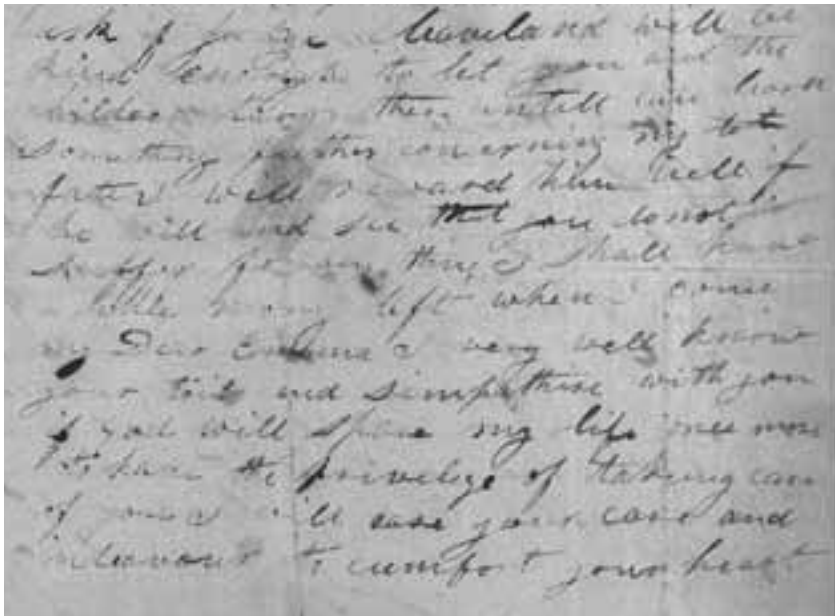
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폭도들에게서 벗어나 그들에게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해 주오.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이 훌륭한 생각을 갖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오.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쉽게 화내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 주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들이 반드시 착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오. 사랑하는 에머, 아이들 앞에서 존귀와 평정을 유지하고, 그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봄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어리고 유약한 마음이 훌륭하게 형성되도록 옳은 것을 가르칠 큰 책임이 당신에게 있소.”⁸

1839년 11월 9일,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나는 당신에게서, 특히 어린 프레드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 계속 당신과 아이들에 대해 걱정할 것이요. 몸이 아픈 그 아이를 두고 떠나 온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소. 나는 당신이 어머니와 성도에 어울리는 태도로 그 여린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정신을 교화하며, 글을 읽을 줄 알고 침착한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쳐 주길] 바라오. 그들이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에 나가 있지 않도록 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오. 내가 당신 곁에 없는 시간은 길고 외로운 시간이 될 것이요 … 내가 갈 때까지 인내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구려. 하고 싶은 말을 다 쓸 수는 없지만 나를 믿어 주오. 당신에 대한 나의 느낌은 가장 훌륭한 것들이요.”⁹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는 역경의 시기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1832년 6월 6일, 인디애나 주 그린빌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나는 거의 매일 마을 바로 뒤에 있는 숲을 찾아갔소. 그곳에서 나는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 마음속의 모든 느낌을 명상과 기도로 표출했소. 나는 마음속으로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내 영혼의 원수가 지난 세월 동안 내게 세력을 떨치도록 허락했던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나는 그분께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 주시는 것을 기뻐하오. …

“나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알기에 나의 운명에 만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요. 그분 안에서 나는 위안을 찾을 것이요. 나는 내 목숨을 그분의 손에 맡겼소. 그분의 부름에 따라 갈 준비가 되어 있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 그분의 뜻을 행할 뿐, 나는 내 목숨에 연연하지 않소.”¹⁰



1839년 3월 21일, 리버티 감옥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1834년 6월 4일, 선지자 조셉이 시온 진영과 함께 여행하던 중 일리노이 주 서부에 있는 미시시피 강 독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매 순간 우리의 생각에서 아내와 자녀, 우리 마음에 맴도는 혈육의 친척들, 그리고 또한 형제와 친구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소 … 부친과 모든 가족 그리고 올리버 [카우드리] 형제에게 마음에 위안을 얻고 이 생의 고난과 시련이 끝나는 날, 우리가 끝까지 충실하게 견딜 경우 우리의 노고에 대한 결실을 누리게 될 날을 고대하라고 전해 주오. 나는 그 결실이 우리 모두의 행복한 운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소.”¹¹

1838년 11월 4일, 그가 투옥되어 있던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내 품 안에 있는 사랑하는 동반자여, 나는 잘 있으며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고 싶소. … 나는 당신과 사랑하는 아이들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소. 나의 마음은 형제자매들과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애통하며 마음이 아프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늘 최선의 것을 소망하고 있소. 비록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오. 폭도들이 어떤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거의 또는 전혀 억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오.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 하나님

께서는 우리 중 몇 명을 지금까지 살려 두셨으며, 어쩌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분명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으며, 다만 구원이 주어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인내와 불굴의 정신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할 뿐이요. 나는 당신이 모든 신뢰에 충실하고 참되기를 바라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편지에 많은 것을 적을 수는 없소. 상황과 필요에 따라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신중함과 절제심을 주시기를 바라오. 당신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믿소.

“나는 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소.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해 주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 오 에머 … 나를 떠나지도, 진리를 버리지도 말고 나를 기억해 주오. 내가 이 생에서 다시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 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구려. 나의 마음이 벅차오. 안녕, 오 나의 다정하고 사랑 많은 에머여.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남편이자 진실한 친구라오.”¹²

1839년 3월 21일,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사랑하는 나의 에머, 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공감하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내 목숨을 살려 주셔서 당신을 돌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면, 당신의 어려움을 털어 주고 당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요. 당신이 가족을 잘 보살펴 주길 바라오.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할 것을 믿고 있소. 프레드릭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불편했으나, 그 아이가 다시 회복되고 당신도 건강하다고 믿고 있소. 나는 당신이 다시 시간을 내어 내게 긴 편지를 써 주고 당신이 말해 줄 수 있는 모든 것과, 늙은 개 메이저가 아직 살아 있는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당신 목에 매달려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길 바라오. …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오. …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뜻과 지혜에 따라 매사를 다스리시오. 나는 그분을 신뢰하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요. 나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요. 만일 주님이 나를 이곳에 조금 더 오래 두신다 해도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소. 나는 내 영혼을 돌보아야 하며,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요.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오. 영원한 당신의 남편.”¹³

1842년 8월 16일, 선지자 조셉이 원수들을 피해 숨어 있던 중 일리노이 주 나부 근처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거의 유배되다시피 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 두 번씩이나 즐겁고 위안이 되는 면회를 와 준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하오. 당신이 내게 이러한 것에서 보여준 따뜻하고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정에 대해, 마음에서 느끼는 고마움을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구려. 당신이 내게 다녀간 뒤, 시간은 매우 즐겁게 흘러갔소. 나의 마음은 내 운명이 무엇이든 그에 완전히 순응하고 있소. ...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아직 괜찮다고 말해 주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오. 어머니에게는 그분의 아들이 살든 죽든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 주시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오. 내가 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 주오. 또한 루시[조셉의 누이]와 나머지 사람들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오. 그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야 하오. ... 열렬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¹⁴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에머와 자녀들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감정에 유의하면서 본 장을 간략하게 복습한다. 그의 모범은 우리가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조셉과 에머 스미스가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서로를 보려고 노력한 사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여러분이 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선지자 조셉은 에머에게 “영원토록 ... 당신과 아이들의 참되고 충실한 친구”라고 했으며 “따뜻하고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정”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242, 246쪽)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의 우정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조셉 스미스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훌륭한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는 말로 에머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245쪽) 그러한 신뢰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246쪽 둘째 단락에서 선지자 조셉이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다. 그것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가? 시련을 겪는 동안,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243~246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 조셉 스미스가 표현한 것을 복습한다. 이 표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 몇 가지를 찾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진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창세기 2:24; 고린도전서 11:11; 에베소서 5:25; 모사이아서 4:14~15; 교리와 성약 25:5, 9, 14; 68:25~28

주

1. *History of the Church*, 2:502; 현대화된 철자법;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B-1, 767쪽, 그리고 부록, 6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2.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2년 6월 6일, 인디애나 주 그린빌; Chicago Historical Society, 일리노이 주 시카고.
3.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2년 10월 13일, 뉴욕 주 뉴욕시티; 그리스도 공동체 기록 보관소,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4.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8년 11월 12일, 미주리 주 리치몬드; 그리스도 공동체 기록 보관소,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5.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9년 4월 4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예일 대학교, 바이네크 도서관; 교회 기록 보관소에 있는 사본. 조한나의 성명은 조한나 카터였다; 그녀는 존 에스와 엘리자베스 키년 카터의 딸이었으나 조셉과 에머의 양녀가 되었다.
6.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40년 1월 20일, 펜실베이니아 주 체스터군; Chicago Historical Society, 일리노이 주 시카고.
7.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8년 11월 12일, 미주리 주 리치몬드; 그리스도 공동체 기록 보관소,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8.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9년 4월 4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예일 대학교, 바이네크 도서관; 교회 기록 보관소에 있는 사본.
9.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9년 11월 9일,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그리스도 공동체 기록 보관소,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10.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2년 6월 6일, 인디애나 주 그린빌; Chicago Historical Society, 일리노이 주 시카고.
11.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4년 6월 4일, 일리노이 주 서부에 있는 미시시피 강 뚝에서; Letter Book 2, 1837~1843, 58쪽, Joseph Smith, Collection, 교회 기록 보관소.
12.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8년 11월 4일,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그리스도 공동체 기록 보관소,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13.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9년 3월 21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Joseph Smith, Collection, 교회 기록 보관소.
14. *History of the Church*, 5:103, 105;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42년 8월 16일, 일리노이 주 나무 근처.